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 순천시 '2019년 아동친화 도시 조성사업' 추진 박차

### 전략사업 15개 부분 선정 · 185개 시책사업 추진



올해 순천시는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15개 부분을 선정하고 36개 부서와 협업하는 185개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주요 전략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적의 놀이터 설치·운영, 그림책 도서관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 찾아가는 자정거 교실 운영 등을 추진한다.

올해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아동의 잊힌 권리, 놀 권리를 위한 '나가서 놀자', '아동권리 발표제', '행복을 만드는 공간', '토론포럼' 등을 추진한다.

'나가서 놀자'는 우리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어른들이 확보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도록 '나가서 놀자' 캠페인을 펼쳐, 놀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시키는 취지에서

에서 실행될 예정이다.

특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추천한 '한국 어린이가 하고 싶은 바깥놀이 50가지'의 내용 중에서 계절에 맞는 자연친화적인 장소와 놀이를 아이들이 선정하고 부모들과 함께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 할 계획이다.

'권리 발표제'는 아동들이 느끼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바라는 세상'에 대한 생각을 웅변과 연극, 장기자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아동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포스터 공모와 발표제 당일 전시를 통해 아동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5월 5일 어린이날은 아동·청소년 참여위원들이 주체가 되는 '행복을 만드는 공간'을 운영해 아이들의 고민, 자녀들에 대한

부모 고민, 아이들의 권리 주장 칭찬 나눔터 등 어린이날을 재미와 행복이 넘치는 하루로 구성할 계획이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알게 하기 위해 '제3기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초·중·고 재학생에서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 구성함으로써 환경에 상관없이 아이들 스스로 권리를 가진 자주적 주체임을 자각하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위해 지난해에는 19명의 순회강사를 육성해 총 103회 24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교육대상을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더 확대하고 이에 따라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됐다!! 아동권리 홍보단'을 구성해 순천만국가정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여러 행사장을 찾아 아동권리를 재인식시키는 다양한 방법과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순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동권리 옹호단 운영, 아동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중장기적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동청소년과 허희순 과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지역사회 아동권리 인식 개선이 최우선 과제를 인식하고, 아동권리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관련 정책을 펼쳐나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중소기업 1사 1핵심기술 정보제공 사업 추진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특허·경쟁 정보 등 맞춤형 정보 제공

광양시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 호남지원과 함께 '2019 중소기업 1사 1핵심기술 정보제공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외 기술, 특허, 학술 및 동향 등 기술정보를 입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시행돼왔다.

'1사 1핵심기술 정보제공 사업'은 중소기업이 신청한 기술정보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 전문가들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특허, 경쟁 정보, 연구 분석보고서 등 상세 자료를 제공

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산업시장 전문 정보 등을 조사해 원문과 함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에도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참여 기업 20개사를 3월 한 달 간 모집한다.

모집과 관련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http://www.gwangy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 호남지원(☎062-951-7115) 또는 광

양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061-797-3122)로 연락하면 된다.

정승재 기업지원팀장은 "1사 1핵심기술 정보제공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IST와 함께 업체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양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중소기업 1사 1핵심기술 정보제공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16개 업체에 맞춤형 종합정보 조사 자료를 제공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 순천시 매곡동 '제4회 탐매축제&정원축제' 개최

전국에서 흥매화가 가장 먼저 피는 마을로 알려진 순천시 매곡동 탐매마을에서 '탐매축제&정원축제'가 5일 탐매회관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탐매축제&정원축제'는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마을축제로, 지난해까지 가을철에 개최했던 정원축제를 탐매축제와 통합해 탐매마을 대표축제로 거듭났다.

이번 축제에서는 흥매화를 매곡동의 대표 나무로 공표하고 순천시에서 추진 중인 '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의 성공을 기원하며 기

념식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흥매화를 테마로 한 체험과 전시, 탐매마을 주민의 열의를 담은 흥매화연가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특히, '해설이 있는 골목길 정원투어'는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린 흥매화정원과 96세 어르신이가 끈 인포정원, 한국기독교의 역사가 살아있는 기독교역사박물관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정원투어 참가는 4일까지 선착순으로 사전접수를 받았다. 신청

은 매곡동행정복지센터(061-749-8888)로 하면 되고, 축제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김민용 매곡동장은 "이번 축제는 흥매화를 테마로 하는 탐매마을의 볼거리를 따라 마을여행을 하며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다"며 "2019 순천 방문의 해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아와 흥매화의 진한 향기에 취하고 멋진 추억을 담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황경석 기자

## 보성군, 해양수산업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 어업인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심의



보성군은 지난달 2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어업인 대표와 유관기관 수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명이 참석해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2019~2020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업 예산 신청 심의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읍·면에서 신청된 해양 관련 사업과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해양수산 사업 대상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했다.

심의대상은 총 36개 사업 130건 296억 4200만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군 자체사업 13건 256억 5500만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13건 500만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35건 2억 6900만원,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3건 3600만원, △마을어장 개발사업 4건 2억 원 등이다.

보성군은 이날 심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오는 22일까지 전남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예산요구를 할 예정이며,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배정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 광양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접수

광양시는 31일까지 친환경인증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소재지 읍면 동사무소에서 2019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이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농

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ha당 경우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이 지급되고, 밭일 경우 유기농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0.1~5.0ha이며,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유기

농은 5년, 무농약은 3년이다.

지급 기간이 끝난 필지는 유기농·무농약 지속직불제 농은 ha당 35만 원, 밭은 ha당 7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제외된다. 해당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와 친환경인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총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